



- 브라질 하선 남성만 선교사

브라질은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3여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쌍파울로는 브라질내에서도 더욱 코로나가 심한 지역으로서 크고 작은 모임을 하지 못하고 비데면으로 만나곤 했었지요.

그러나 드디어 지난 9월 17,18일 이틀에 걸쳐서 펜데믹이후 처음으로 데면으로 인카운터를 하였습니다. 60명의 캔디와 43명의 팀멤버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브라질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어 인카운터를 진행하였고 브라질 어느곳이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팀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동안 브라질에 오셔서 가르치고 양육해주신 목사님과 여러 팀멤버들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기도제목

- 1.내년 브라질 인카운터 및 AFA 그리고 TD와 목회자양육 등의 사역들을 위하여
- 2.모잠비크 내년에 있을 인카운터,AFA 사역..목회자 성경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결과 암이 1cm 자랐고, 전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과 식욕부진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암이 온전히 치유되어 속히 튀르키예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종양 제거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단지 신세포암 1기로 결과가 나와서 잔여 암세포 박멸을 위한 표적치료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자에 선교사

치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적치료만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해주세요.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최정미 선교사

치아 손상이 심하여 4개를 발치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과 발음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온전한 치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2022년 10월 GMI-GKC 선교사 현황 : 57개국 318명 (자체 파송 75%)

10.16. 2022

GRACE 선교소식

파나마 Yaviza에서 선교 소식 전합니다



- 파나마 김재한 그레이스 선교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이곳 파나마 Yaviza에서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이 8월 15-22일까지 7개교회 리더들을 위한 제2기인 카운터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되는 강의에도 한사람도 졸지않고 열심히 경청하며 강의 중간 중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에 섬기러 오신 은혜교회 팀멤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였습니다.

현지교회 리더들이 은혜한인교회 팀멤버들과 함께 섬기며 진행한 제2기



라 팔메라 하나님의 은혜교회 건축

그동안 여러 단기사역팀 방문과 여러 사역으로 중단되었던 라 팔메라마을 하나님의 은혜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의 2배로 오른 건축 자재가격으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중에 건축 완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민사역을 시작합니다

2년전부터 주로 베네주엘라 난민과 쿠바, 아이티난민들이 파나마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번씩 빵과 물 그리고 비상약품과 성경말씀인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처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 1. 베네주엘라 난민사역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 2. 라 팔메라마를 하나님의 은혜교회 건물이 올해중에 완공되도록.
- 3. 10월에 온라인 신학교강의와 야뻬마을 전도 집회를 위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천국 가족 여러분께

 - 일본 나고야 이종하 정혜경 선교사

안녕하세요. 설새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모두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어느새 2022년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장마와 태풍이 몇차례 몰아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남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곧 끝나리라 예상되었던 것이 어느새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당사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그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리고 눈 앞의 일들만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닐지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 필요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승리를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일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아이찌켄 이나자와 크리스찬 웨미리
- 미에켄 미도리노 마키바 그레이스 교회
- 오사카 후 카제도 히바나 교회
- 시즈오카켄 시즈오카 사미르교회



사역보고

저희는 이곳에서 매주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교제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되는데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제하는 사역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일본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187회 일본의 교회를 방문해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기독교 관련 행사로는 역사도 있고 규모가 큰 JPF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개최가 되었는데 참가규모가 예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과 사역자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일어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방문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 방문교회의 목사님 가정의 회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기도제목

- 하루의 첫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세우고 나가도록..
- 믿음을 고백한 영혼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 속에 세워지도록..
- 한글 수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 시온이가 헝가리의 대학생활을 통해 발견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번 대학원 진학 방향을 통해 굳건히 세워지도록..
-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들을 각자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 둘째 시몬이의 건강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피곤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기도로 아뢰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의 더욱 큰 은혜가 넘칠 줄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 알바니아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

지난 여름에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만남들이 허락되어졌고 그 만남들을 통해 위로도 받고 주님의 책망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과 이끄셨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말씀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더욱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겠다는 다짐과 그 훈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숫자와 큰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눈에 될성 부른 나무에 집중하고 저희의 열심과 특심으로 복음을 강요하는 실수를 많이 하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영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 인도 ४०० ००० 선교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28:19-20)

점점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있는 인도

초근 저희 지역의 근방에서 한국 선교사님과 한국 청년 5명이 아이들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도중에 구타를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
동하였고, 기자들이 전역에 하루 종일 Break News로 이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주 전에는 푸네 FRRO(인도 출입국 사무소) 경찰
이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교사님 댁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장시간
심문 조사하고 갔습니다.



조만간에 한국어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인도 대학의 학사 일정과 한국어 과정에 대
한 담당자의 오해로 개설이 늦어졌습니다. 영적인 방해
도 있었습니다. 사원을 가진 힌두강성대학에서 전도하기
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 강의사역 및 한국 대학과 인도
대학 사 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방
해를 뚫고 전도와 제자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길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이곳의 영혼들의 복음전파를 위해
 - 2. 새 방과후 학교가 열려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 3.한국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을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 4. 도시락 사역과 치료 사역을 통한 노숙인 전도를 위해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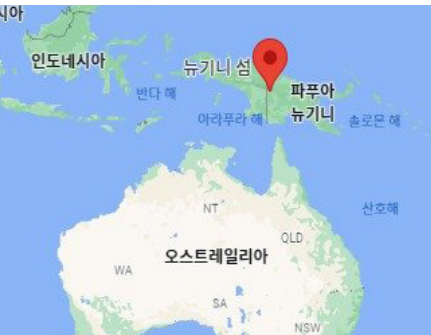
 -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9)

파푸아뉴기니는 선거 여파로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
자들이 발생하여 장갑차와 군인들이 출동하여 진압하였고, 우카룸파 센터 인근 마을에서
도 집 15채를 불에 태웠고, 농작물을 훼손시켰으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현지인들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금하고, 양식과
옷, 음식, 생필품과 주방용품 등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살고 있는 우카룸파 인근의 부족들이 이 정도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부족들의 상황이
어떠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파푸아뉴기니 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속히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11일에 우카룸파 근처에 있는 카이 난투에서 67km 떨어진 지역에서 강도 7.7의 강진
이 났습니다. 진원지에 인구가 적고 흩어져 있어서 사상자가 적었고, 큰 건물이 없 어서 피
해도 적었습니다. 김운용 선교사의 사무실(문서보관실)과 우카 룸파 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운용 선교사는 와기어의 문법 자문과 나마어
의 음운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용 선교
사의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선
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 분의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파푸아뉴기니의 부족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
고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치안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2. 우아레 부족의 신약성경 녹음작업이 2023년 1
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는 녹음 가운데 방해하는 세
력 없이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3. 나마어, 와기어 언어학 자문으로 섬길 때 김운용
선교사와 각 부족의 성경번역 선교사, 현지인 조력
자의 협력하는 사역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지난 7월 “아가서 강해와 신부의 영성”(홍석구 장로님), 8월 “십자가의 비밀”(이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의 귀한 가르침에 학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과테말라 AFA #4(S/L송중호 목사님, Recter케빈 김 안수집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잔치였습니다. 많은 캔디테이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였습니다.



9년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의 비전을 주시고 많은 사역을 크게 열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 주셨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는 위로의 말씀으로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믿음과 영력이 더욱 강건해져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 1.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충만하도록
- 2. 부족한 GMI 과테말라 사역 재정이 채워지도록
- 3. 과테말라시티/깨짤데낭고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을 위하여
- 4. GMI과테말라 신학교와 IUM 사역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도록
- 5. 최재숙 선교사 류마치스병이 조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이번 티디는 주변국가인 엘살버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멕시코에서 캔디테이트들이 와서 4개국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쁜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신학교 건물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년 부터는 매년 신학교를 운영할 때마다 필요한 장비,물품들을 옮기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이곳이 과테말라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GMI 선교영성의 요람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안과 사랑 기쁨으로!

- 파키스탄 300 000 선교사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홍익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나?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나?” (이사야 58:6-7절)

1947년 이 나라 건국이후 처음으로 이곳에 큰 홍수가 나서 국토의 1/3 이 잠기고, 3천 3백만의 이재민과 1300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번 홍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3차에 걸쳐 약 35개지역 1500가정(가족수 약 9000여명)에게 2주간의 생계를 유지할 긴급식량키트를 배분하였고, 앞으로도 긴급구호활동을 계속하여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전혀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불가촉 천민과 같이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과 함께 구호활동과 개발사역을, 그 곳의 사역자와 마을 지도자들을 통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 지도자 양육

6월 말부터 8월까지의 학교의 방학을 맞이하여, 12개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세미나와 학교별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9월초엔 금요일마다 두 사역 센터에서 2022년 2학기 성경아카데미가 개원되어, 고학년 학생들과 학교 졸업생 그리고 지역 사역자까지 참석하여, 신.구약 성경개론 그리고 영어회화와 합심기도시간을 금요일 저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역을 통하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각 분야별로 받은 달란트 대로 많은 사역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들이 P국 전역으로 흩어져 이 나라 모든 곳의 사역지도자로 세워져 지길 소원합니다.



현지 사역지 두 곳에 세워진 센터교회는 코로나와 홍수 그리고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흠어지지 않고 아직도 많이 연약하지만, 이 나라 교육선교와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해 매일 한 시간 이상씩 증보기도하고 있으며, 구제와 학교선교 신학교를 위해 중요한 베이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1. 홍수피해 구호활동과 함께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2. 11월에 있을 홍수피해지역 제1회 미전도종족 마르와리부족 대상 전도.선교컨퍼런스가 잘 준비되도록
- 3. 이 나라 전역을 다니며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사역과 개발사역 및 지역 사역자를 발굴하여 훈련사역을 할 튼튼한 이동수단을 위해
- 4.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스스로 선교하는 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